

얼마전 백두산이 지척에서 바라보이는 삼지연시에 또다시 천수백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이 일떠서고 새집들이 경사가 펼쳐져 온 나라 인민을 기쁘게 하였다.

백두산기슭의 자연기복과 조화를 이루며 꾸려진 단층, 소층, 다층살림집들이 삼지연시의 10개 동, 리에 새로 일떠섬으로써 백두대지는 더욱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되게 되었다.

삼지연시를 지방산간도시의 전형, 인민의 리상향으로 꾸리고 이것을 모든 지방군들에 일반화하여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려는 것은 김정은령도자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이다.

일찌기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 기술에서 평양시와 함께 도소제지를 비롯한 지방 도시들과 농촌마을들을 지방의 특성에 맞게 꾸릴데 대하여 강조하신 그이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책적인 령도로 귀중한 본보기들을 하나 하나 마련하시며 지방건설의



삼지연시



중령 남새 온실 농장과 양묘장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시었다. 주제102(2013)년 11월 삼지연군(당시)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로력문제로부터 설비와 자재 등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깊이

이 관심하시고 필요한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었다. 주제106(2017)년 12월 삼지연군(당시)을 또다시 찾으신 그이께서는 삼지연군 꾸리기를 완전히 새롭고 통

와 강북리, 검덕지구에 농촌마을의 본보기, 산악협곡도시가 일떠서 지방건설에서 내세워야 할 기준, 목표가 명확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방건설의 본보기, 표준을 일떠세우는 사업과 함께 나라의 모든 시, 군들에서 건설의 일대 전환기가 펼쳐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초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시, 군들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문제들을 제시하시면서 사회주의농촌건설에 힘을 넣어 농촌특유의 문화발전, 우리 식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그러시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와 역사적

인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에서 모든 시, 군들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드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명시해주시었다. 그리고 지난 9월말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역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지방건설발전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농촌들의 면모를 개선시킬데 대한 중대계획과 구상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공화국의 모든



평안북도소년단야영소

평범하고 레사로운 말씀속에 또 깊은 뜻을 담으시는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특유한 친필의 하나였다. 주제85(1996)년 1월 22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당시) 대표사회에 참가하려고 조국에 온 제일조선청년동맹 축하단 성원들을 위해 뜻깊은 연회를 마련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시었다. 그런데 일부 제일조선청년들은 왜지인지 한동안 시간이 흐른 뒤에도 어려워하는 기색을 지우지 못하고있었다. 아버지의 섬세한 눈길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신 장군님께서는 몸을 뒤로 제끼시며 소탈하게 말씀하시었다. 조청원동무들이 조선인민

군청주단 공훈합창단의 공연을 보고 거기에 위임되어 그려나갈 결의를 내지 않는 데 마음을 놓고 식사도 많이 하고 술도 들어가 하셨습니까. ... 오늘 연회는 주인들이 손님들의 포위속에서 진행되고

순식간에 흥겹게 일변시켜 놓았다. 그들은 부자연스럽던 몸가짐을 풀고 자기 집 식탁에 마주앉은듯한 기분이 되어 즐겁게 웃고 떠들었다. 그들의 모습을 유정환 눈길로 바라보시던 위대한

이때 장군님의 나직한 음성이 뒤이어 울렸다. 그렇게 하는것도 다 동포군속에서 들어가는것이요. ... 순간 총련일군들은 이룰수 없는 그 무엇이 가슴을 치며 와닿는감을 느꼈다. 비록 연회도중에 스쳐지나듯이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거기에는 얼마나 깊은 뜻이 의미

심장하게 생동하게 담겨져 있는것인가. 일찌기 총련일군들이 재일동포들속에 들어가 사업하고 생활하는 체계를 세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고 오늘 한마디의 레사로운 말씀을 통하여 한 평생 지워지지 않게 심장에 새겨주시는 아버지장군님이시었다.

수 있다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제미교포들을 친히 만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조국통일문제를 대하여 담화를 나누시었다. 그이께서는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대한 과업은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을 통일하여야 우리 민족은 분열로 인한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통일된 강토에서 행복하게 살

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우리 인민은 민족분열로 인한 재난과 불행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민족이 다같이 진보와 번영의 길로 나갈수 있다고 명철한 해답을 주시었다. 민족의 분열로 겨레가 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가슴아파하시며 그것을 하루빨리 가시기 위해 분분불후의 로고와 실행을 다 기용하게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통일문제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민족최대의 숙망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이다. 나

본사기자 주일봉

동로군속속에서 들어가라

있습니다. 주인보다 손님이 많다보니 술과 음식을 손님들에게 권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공훈합창단의 공연을 보고 앞으로 총련이국사업을 더 잘해나갈 결의를 내지 않는것은 좋지않고 그렇다고 해서 긴장해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장내의 끝까지 울려 퍼지는 그이의 우렁우렁한 음성은 제일조선청년들의 기분을

장군님께서는 이번에는 곁에 앉은 총련일군들에게로 몸을 기울이시더니 이렇게 따듯이 권고하시는데 것이었다. 후배들이 왔는데 동무들이 조정원동무들에게 술을 한잔 부어주라구. ... 이 말을 모신 무상의 행복감에만 도취되어있던 총련일군들은 그제야 자기 할바를 깨닫고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났다.

본사기자

◎ 통일조국의 앞날을 그리시며 ◎

주제82(1993)년 3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제미교포들을 친히 만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조국통일문제를 대하여 담화를 나누시었다. 그이께서는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대한 과업은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을 통일하여야 우리 민족은 분열로 인한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통일된 강토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제미교포들을 친히 만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조국통일문제를 대하여 담화를 나누시었다. 그이께서는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대한 과업은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을 통일하여야 우리 민족은 분열로 인한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통일된 강토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제미교포들을 친히 만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조국통일문제를 대하여 담화를 나누시었다. 그이께서는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대한 과업은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을 통일하여야 우리 민족은 분열로 인한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통일된 강토에서 행복하게 살

본사기자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에 관한 사상제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빛나는 예지와 사회주의에 대한 철석의 신념,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진으로 국가와 인민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탁월한 사상리론의 거장입니다. 그이께서는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도록 공화국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자기 발전행로에서 가장 존엄높고 궁지없는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 놓으시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로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이다. 주제101(2012)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공화국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실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피력하시었다. 그 이듬해의 5월에도 자신의 드림에는 신념을 담아 자신께서는 늘 수령님의 장군님의 넘실대며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강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있다고, 우리 나라를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세우는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지금으로부터 두해전 신년사에서 그이께서는 전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성실한 피와 땀으로 조국의 위대한 역사를 써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역사적인 보고를 하시면서 당 제7차대회이후 지난 5년간 조선로동당은 막대한 모든 장애를 거대한 승리로 전환시키기 위한 굴활없는 공격투쟁을 조직진개하였으며 이 과정에 정취한 승리는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은것으로 특징지을수 있다고 긍지높이 총화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조선로동당이 역사의



《혼연일체의 현상, 그곳의 진실》(3)

무릇 사진은 역사의 기록이고 시대 인민의 얼굴이라고도 할수 있겠다. 다양한 생활의 시공간을 력사의 갈피에 고찰시키며 인간의 감정정서에 깊이 흘러든 사진의 력사가 흘러 어느덧 백수십년. 하지만 그 무수한 사진의 갈피갈피를 훑어보아도 공화국에서처럼 령도자와 인민이 그리도 스투스럼없이 어울려 찍는 사진은 찾을수 없다. 또 그렇게 남긴 기념사진을 가보처럼 귀중히 여기는 인민도 없다. 돌이켜보면 수령과 인민의 현연의 정을 맺고 사는 이 나라의 참모습을 응연적으로 보여주는 수많은 기념사진들이 세상에 알려져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그런 기념사진들가운데는 이런 사진도 있다.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선 사람의 수는 4만명, 그들이 선 길이는 무려 2700m. 경애하는 원수님과 인민군인들이 함께 남긴 사진이다. 과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기념사진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인가. 주제104(2015)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자연의 대재앙으로 큰불피해를 입었던 라신방을 2000여리의 하늘길, 바다길, 령길 을 달려서 두번째로 찾으신것을 때이다. 피해를 말끔히 가시고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일떠선 백학동(당시)을 다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라신전역에서 발휘한 인민군인들의 위훈을 생각하면 가슴이 후터워지고 세상에 대고 자랑하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기념사진을 찍고 가자고 그러는데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무려 1시간 30분동안 수만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까지 기다려주시었다. 나라의 고요곡은 모든 일을 다 돌보셔야 할 경애하는 그에게 있어서 일반일초는 얼마나 귀중하시었나. 더구나 그

때로 말하면 당창건 70돐 경 축하사가 눈앞에 막두한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날 군인건설자들을 만나시어 기념사진을 찍으실 계획을 미리 하고 나오신것은 아니었다. 그렇지 않은 시간을 내시어 수도 평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 자기들의 전투현장을 찾아오신것만도 너무나 고무적임을 생각해볼수 있다. 이렇듯 태어나는 기념사진들이다. 새집들이한 가정들을 찾으면서 마치 가족사진같이 한가정의 예쁜한 정이 넘치는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어느 섬방어대를 찾으신것만도 너무 고무적인데도 6개월밖에 안되는 어린이를 따듯이 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남기시어 2만여명이나 되는 소년단대원들을 위하여서는 무려 20일이나 자리를 옮겨가시며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어 경애하는 원수님.

어찌 그뿐인가. 주제조선의 락 원력을 펼친 과학자들, 황금해역사의 창조자들 그리고 국방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조선로동당기일이 휘날리는 당중앙위원회청사를 배경으로 하여 영광의 기념촬영을 하였다. 그 화폭속에 새겨진 령도자와 인민의 모습은 뜨거운 현연의 정으로 이어진 한가정의 모습이었다. 인민들을 위임없이 찾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굴애와 더불어 온 나라가 그대로 기념촬영장부가 되었다고 이 나라의 수많은 병사들과 로병들, 아이들과 어머니들 그리고 과학자들과 청년들이 따뜻한 그이의 품에 안겨 기념사진을 찍었다. 청년 그것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수도 그 누가 흉내낼수도 없는 령도자와 인민의 현연의 세계, 가례며 가를수 없는 친형술의 정을 담고있는 가슴뜨거운 화폭이다.

본사기자 리연선